대한민국의 '포스베리 도약'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 단장

1968년 10월 20일, 멕시코 올림픽 육상경기를 관전하던 8만 관중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한 미국의 딕 포스베리가 배를 하늘로 향하게 하는 배면뛰기(Flop Jump)를 시도해 거의 드러누운 자세로 바를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높이뛰기의 주된 자세는 얼굴이 땅을 향한 채 다리를 솟구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묘한 자세로 바를 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모자라 올림픽 신기록까지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자 전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한 기자가 그의 이름을 본 따 '포스베리 도약' (Fosbury Flip) 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멕시코 올림픽 이후 수많은 선수들이 이 방법을 좇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역발상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가 심각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일찍이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경제 발전에 따른 환경파괴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라는 문제에 대해 역발상에 의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포스베리 도약' 은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 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키워가자는 역발상입니다. '환경' 과 '경제' 를 양립시킬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믿음과 실천은 이미 전 세계의 지지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녹색성장은 실행모드에 돌입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시점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10대 핵심 녹색기술에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여 벤처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Me First 정신을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행동양식에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전력망과 IT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는 전력망에 IT를 적용해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스마트그리드가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 분야입니다. 제주도에 건설 중인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고,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마련될 것입니다.

'포스베리 도약' 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포스베리 이후 배면뛰기가 보편화된 시점에서도 제 3세계 국가 선수들은 배면뛰기가 아닌 기존의 자세로 국제대회에 출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배면뛰기는 등으로 착지를 해야 하기에 푹신한 매트리스 장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던 국가의 선수들은 배면뛰기가 더 나은 기록향상을 가지고 올 것임을 알면서도 기존 자세로 연습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도약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빈곤층 해소 방안을 통해 녹색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전세계적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녹색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KEA